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푸드뱅크(Food Bank) 사업의 기탁 특성 분석*

조미나[†] · 홍민아¹⁾ · 강혜승²⁾ · 양일선³⁾

CJ 식품연구소, 대웅제약¹⁾ 연세대학교 식품영양과학연구소²⁾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부 급식경영전공³⁾

Analysis on the Donators'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Mi-Na Jo,[†] Min-Ah Hong,¹⁾ Hye-Seung Kang,²⁾ Il-Sun Yang³⁾

CJ Foods R&D, Seoul, Korea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¹⁾ Seoul, Korea

Institute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s,²⁾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³⁾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onators' characteristics and donative foods of both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benefits of food bank program, and to find the solutions to activate food bank program.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20 food bank operators and 3 donators were selected from each food bank for the survey from April 2002 to May 2002. 118 sheets (32.8%) from government-dominant food bank and 53 sheets (20.1%) from non-governmental food bank were collec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largest donators to either government-dominant or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were bakery and confectionery companies 31.4% and 45.3%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donated foods were "goods in stock" (55.6%) and frequency of donation were largely on a daily basis (27.1% for government-dominant and 22.6% for non-governmental). Some of the donators who had more donative food did not donate, and the reasons were closeness to expiration date of food (67.3%), lack of legal protection in the event of food poisoning (54.5%), and poor public image of food related accidents (52.3%).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5) : 618~628, 2006)

KEY WORDS : food bank · government-dominant · non-governmental · donator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만, 기업의 이윤창출 행위나 존립 자체도 사회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회적 책임과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기업의 식·생필품 기탁 참여 역시 이러한 기업의 활동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식·생필품 기탁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는 푸드뱅크 사업을 통한 참여이다(정무성 등 2005).

푸드뱅크는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식품기탁자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이러한 연결과정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식품자원의 낭비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정기혜 등 1998).

미국에서는 1967년 자원봉사자인 John Van Hengel에 의해 시작된 후, 1976년 세금개혁법령(Tax Reform Act)과 정부지원을 통한 Second Harvest Foodbank라는 전

접수일 : 2006년 8월 3일

채택일 : 2006년 11월 5일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과제번호 : 2000-2-2200-006-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Mi-Na Jo, Savory/Global Center, CJ Foods R&D, 636 Guro-dong, Guro-gu, Seoul 152-050, Korea

Tel: (02) 2629-5336, Fax: (02) 2631-8485

E-mail: mina@yonsei.ac.kr

국조직이 형성되면서 세계 최초로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구호활동이다. 미국은 푸드뱅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탁자, 이용자들과의 관련법의 제정 등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시설과 자원봉사인력을 제공하고 있다(<http://www.secondharvest.org>).

우리나라의 푸드뱅크는 하나의 복지체계로 도입되기 전,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문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1997년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보고서(유기영 1997)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감량방안으로 식품기부센터의 설립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는 IMF 위기를 맞으면서 실직 노숙자와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문제 해결이라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푸드뱅크의 도입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과 순수복지체계로서의 일면을 모두 가진 복합적 배경 하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Cheong 1999).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푸드뱅크의 두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부문 푸드뱅크는 정부의 시범 사업에 의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전국 푸드뱅크」 사업이며, 민간부문 푸드뱅크는 1998년 서울YMCA, 대한YWCA연합회,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성공회 푸드뱅크, 한국부스러기복지선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등이 만든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가 푸드뱅크 사업이다(Yang 2002).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에서는 2006년 현재 총 271개소의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를 통하여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http://www.foodbank1377.org>). 각각의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의 기능 및 역할은 전국 푸드뱅크의 경우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를 연결하는 조직적인 사업수행체계 구축, 기탁식품의 총괄 협의조정 및 대규모 기탁식품 발굴 및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 푸드뱅크는 광역 관내 기초푸드뱅크와 전국푸드뱅크를 연결하는 사업수행체계 구축, 지역내 기탁식품의 총괄 협의 조정, 지역내 홍보 및 지역단위 대규모 기탁식품 발굴 및 분배, 지역내 기초푸드뱅크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초푸드뱅크는 지역내 기탁식품의 수급관리 및 사업홍보, 광역푸드뱅크 사업의 참여 및 협력, 사업계획수립 및 실적 관리·보고, 기탁처 및 수혜대상자 발굴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활용, 사업수행관련 각종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기초단위의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

한 조사 및 정책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은 운영자, 기탁자, 이용자를 3대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와 자원봉사자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탁자가 기탁한 잉여식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분배하는 매개체 역할을 운영자가 수행하고 있다. 또한 푸드뱅크1377은 1377이라는 푸드뱅크 전용 전화를 1998년 9월 17일에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도·감독하는 푸드뱅크1377의 경우 정부 및 대기업에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푸드뱅크 1377에 1999년 냉장고 50대, 냉동차량 23대, 2001년 냉장고 70대, 냉동차량 25대, 2002년 냉장고 84대, 냉동차량 93대의 냉동탑차 예산을 지원하였다(Yang 2002). 2002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는 푸드뱅크1377에 매달 운영비 30만원, 인건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2).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경우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또한 푸드뱅크1377에는 대기업의 물품기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1년 10월 10일 기준 기업별 기탁 총실적을 살펴보면 제일제당이 전체 기탁액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대상, 동원 F&B, 롯데칠성, 롯데제과, 필스버그코리아, 한국야쿠르트, 태창, 크라운베이커리, 모닝웰, 풀무원, 파리크라상 등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탁자별 기탁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이 8,422,750천원으로 35.16%을 차지하고, 식품 도소매업 27.22%, 기타 15.6%, 집단급식소 10.13%, 즉석 판매 제조업 9.03%, 식품접객업 1.7%, 일반가정 1.16%로 나타나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의 기탁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ttp://www.foodbank1377.org>).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는 IMF 구제금융 이후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이웃들의 고통을 덜고 사회적 나눔과 연대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8년 서울YMCA·대한YWCA연합회·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성공회푸드뱅크·한국부스러기복지선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등이 만든 민간사회복지활동기구이다. 그동안 사랑의 먹거리나누기 캠페인, 무료급식지원사업, 겨울김장담그기, 졸도리 모금쌀 나누기, 사랑의 우유나누기, 지역푸드뱅크 구축,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정책개발과 사회복지제도개선활동 등의 일을 해 왔다.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푸드뱅크 중 여러 단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Yang 2002).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는 종교단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특히 성공회푸드뱅크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푸드뱅크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199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01년 12월부터는 서울남부, 서울북부, 경인지구, 대전지구, 강원지구, 전주지구, 부산지구의 7개 지역본부를 포함한 총 24개 지부로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공공부문인 푸드뱅크1377과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부문 푸드뱅크의 경우, 무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비인가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에게 기탁품을 전달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Yang 2002). 그러나, 민간푸드뱅크의 경우 여러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푸드뱅크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푸드뱅크와 달리 사업실태와 실적 등 그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자료의 보고체계, 정보의 공유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Park 1998). 또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가 소속 6개 단체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 조직마다 서로 다른 운영 및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까지 푸드뱅크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Hong 2003; Oh 2002; Park 1998; 정기혜 등 1998; 정기혜 1999, 2000; 정무성 등 2005), 푸드뱅크 사업을 지역 사회 운동과 연계한 연구(Kim 2004; Han 2001), 푸드뱅크의 경제적인 효과성에 관한 비용, 편의 분석(Kang 2002), 정보 기술과 인터넷에 기반을 둔 푸드뱅크 정보화 시스템 모형 개발(Kim 2000), 푸드뱅크의 HACCP 적용에 관한 연구(Kim 등 200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실행된 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푸드뱅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기탁식품 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기혜 등 1998). 기탁된 식품의 대부분은 일반 식품이나 음식보다 신선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식품일 경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이 주로 분배되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식품뿐만 아니라 옷 등의 생활용품이나 성금 등을 기탁받는 것과 달리, 국내 푸드뱅크는 가공식품, 식재료, 조리된 음식 등을 기탁받고 있으나 조리된 음식이 상당량을 차지하므로 이에 따른 식중독발생 등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많다(정기혜 등 1998; <http://www.sfb.or.kr>).

특히 기탁식품 중 조리된 음식은 조리 후 보관할 보온·보냉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Kwak 등 2001; Lee 등 2001; Heo 등 1999)에서 저장배식된 것들이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품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탁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에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기탁자 현황 및 기탁품의 특성, 기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각 주체별 푸드뱅크 기탁자 및 기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푸드뱅크 기탁과 관련한 문제점 및 혜택을 분석하고,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1) 용어의 정의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은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국푸드뱅크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인 「푸드뱅크1377」과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산하 서울YMCA, 대한YWCA연합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성공회 푸드뱅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의 6개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두 주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 정의 및 역할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주로 정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푸드뱅크1377」을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를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로 정의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기탁자로 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2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구성 방법과 개념의 표현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배포 및 회수는 전국 지역별 분포에 따라 비례충화추

출법에 의해 푸드뱅크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하여, 각각 120곳의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운영자에게 기탁자용 설문지 3부씩 총 360부를 우편 발송한 후 운영자가 기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회수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수령확인 절차를 거쳐 미수령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재발송하여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118부(회수율: 32.8%),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53부(회수율: 20.1%)를 회수하여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지는 민간단체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운영자, 기탁자, 이용자 측면에서 실시한 Kang (2002)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푸드뱅크 기탁자 회사 유형, 기탁참여 계기, 기탁물품 유형 및 품목, 기탁빈도, 기탁방법, 기탁과 관련된 문제점, 기탁으로 발생하는 편익, 세제혜택,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1.0)을 사용하였다. 조사 항

목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두 집단 간 차이 및 기탁자의 사업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기탁자의 유형은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제과·제빵업체 (31.4%), 단체급식업체(23.7%), 음식료품 제조업체(10.2%), 식품 유통업체(9.2%)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제과·제빵업체(45.3%)가 가장 많았으며, 음식료품 제조업체(13.2%), 식품 유통업체(13.2%), 단체급식업체(5.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제과·제빵업체와 단체급식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탁자의 특성

기탁업체의 규모 면에서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기탁업체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Bakery	37	31.4	24	45.3	61	35.7
Foodservice	28	23.7	3	5.7	31	18.1
Food manufacturing company	12	10.2	7	13.2	19	11.1
Food distribution company	10	9.2	7	13.2	17	9.9
Restaurant	7	5.9	4	7.5	11	6.4
agricultural market	7	5.9	3	5.7	10	5.8
Supermarket	5	4.2	1	1.9	6	3.5
Traditional market	3	2.5	1	1.9	4	2.3
Etc.	5	4.2	2	3.8	7	4.1
No answer	4	3.4	1	1.9	5	2.9

Table 2. Types of the donators

Characteristics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Private company	68	57.6	37	69.8	105	61.4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13	11.0	9	17.0	22	12.9	
Types of donators	Large enterprise	10	8.5	2	3.8	12	7.0
	School	19	16.1	1	1.9	20	11.7
	Etc.	7	5.9	4	7.5	11	6.4
	No answer	1	0.8	0	0.0	1	0.6
χ^2			468.000*				

*: $p < .05$

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기탁업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개인업체(57.6%), 학교(16.1%), 중소기업(11.0%), 대기업(8.5%)의 순으로 나타났고,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개인업체(69.8%), 중소기업(17.0%), 대기업(3.8%), 학교(1.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푸드뱅크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유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경우에는 푸드뱅크의 홍보활동(37.3%), 공공기관에서의 홍보(23.7%)인 반면,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방송매체·인쇄물·인터넷(34.0%), 푸드뱅크의 홍보활동(32.1%)로 조사되었다(Table 3).

기탁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53.2%)라는 응답율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서의 권유' (11.0%)라고 응답한 비율이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업체는 11.0%,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업체는 3.8%로 나타났다(Table 4).

3. 기탁품의 특성

기탁품의 유형은 '판매재고 상품' (55.6%)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기탁업체의 기탁품은 제조·가공식품 중에는 빵류(71.9%)가 가장 많았고, 농·수·축산물 중에는 채소류(55.0%), 육류(20.0%)가 많았고, 조리된 음식 중에는 반찬류(91.4%), 밥류(77.1%)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기탁업체의 기탁품은 제조·가공식품 중에는 빵류(60.5%), 농·수·축산물 중에는 채

Table 3. How to know about food bank program

Methods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PR from food bank	44	37.3	17	32.1	61	35.7
the mass media, newspaper, magazine, internet	20	16.9	18	34.0	38	22.2
PR from public office	28	23.7	7	13.2	35	20.5
Etc.	19	16.1	9	17.0	28	16.3
No answer	7	5.9	2	3.2	9	5.3
χ^2			6.420 ^{NS}			

Table 4. Motives to participate food bank program

Motives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To help the community's alienation social class	59	50.0	32	60.4	91	53.2
Persuasion of food bank operators	16	13.6	7	13.2	23	13.5
Influence of the owner's working principles	18	15.3	6	11.3	24	14.0
Persuasion of public institution	13	11.0	2	3.8	15	8.8
Etc.	5	4.2	3	5.7	8	4.7
No answer	7	5.9	3	5.7	10	5.8
χ^2			6.598 ^{NS}			

^{NS} No Significance

Table 5. Types of donative food

Types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Goods in stock	68	57.6	27	50.9	95	55.6
Leftover after serving the meal	21	17.8	3	5.7	24	14.0
Sample product	7	5.9	1	1.9	8	4.7
Normal product	1	0.8	5	9.4	6	3.5
Poor packaged product	3	2.5	2	3.8	5	2.9
Unmarketable developed product	2	1.7	1	1.9	3	1.8
Etc.	8	6.8	6	11.3	14	8.2
No answer	8	6.8	8	15.1	16	9.4

소류(45.5%), 육류(45.5%)가 많았고, 조리된 음식 중에는 반찬류(57.1%), 국류(42.9%) 등이었다. 또한 간편식으로 즉석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중 도시락, 김밥 등은 기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조리된 음식은 중복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단체급식소에서 밥류, 국류, 반찬류를 동시에 기탁하기 때문이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 비해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에 더 많이 기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식품 기탁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정기적인 기부금은 없었으며, 민

간주도형 푸드뱅크에는 정기적 현금 기탁자가 있었다.

기탁빈도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비정기적’(31.4%), ‘매일 기탁’(27.1%), ‘주 2~3회’(18.6%)의 순이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매일’(22.6%), ‘주 2~3회’(18.9%), ‘비정기적’(18.9%)으로 기탁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현재 기탁업체가 푸드뱅크에 기탁할 때 식품을 전달하는 방법은 기초푸드뱅크나 수혜처에서 가져가는 비율(74.3%)이 가장 높았으며, 기탁업체에서 직접 수혜처에 전달(14.6%)

Table 6. Items of donative food¹⁾

	Item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N	%	N	%
Processed food	Bakery	41	71.9	23	60.5
	Milk · dairy product	6	10.5	7	18.4
	Canning food	5	8.8	1	2.6
	Ham	4	7.0	2	5.3
	Soy and bean paste	4	7.0	2	5.3
	Etc.	9	15.8	6	15.8
Total		69	121.1	41	107.9
Raw food	Vegetables	11	55.0	5	45.5
	Meats	4	20.0	5	45.5
	Fruits	3	15.0	2	18.2
	Grains	2	10.0	1	9.1
	Fishes	2	10.0	0	0.0
	Spices	2	10.0	0	0.0
	Etc.	3	15.0	1	9.1
Total		27	135.0	15	127.3
Instant food · fastfood	Rice cake	5	41.7	2	40.0
	Hamburger	4	33.3	2	40.0
	Lunchbox	1	8.3	1	20.0
	Kimbab	1	8.3	0	0.0
	Etc.	2	16.7	1	20.0
Total		13	108.3	6	120.0
Cooked food	Side dishes	32	91.4	4	57.1
	Cooked rice	27	77.1	2	28.6
	Soup	24	68.6	3	42.9
	One-dish meal	9	25.7	1	14.3
	Etc.	5	14.3	1	14.3
Total		97	277.1	16	157.1
Daily commodities	Soap	1	25.0	0	0.0
	Toothpaste	1	25.0	0	0.0
	Shampoo, Rinse	1	25.0	0	0.0
	Etc.	3	75.0	1	100.0
Total		6	150.0	1	100.0
Money	Irregularly	6	100.0	6	66.7
	Regularly	0	0.0	4	44.4
	Total	6	100.0	10	111.1

¹⁾ multiple answers

하는 비율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Table 8). 앞으로 바라는 기탁 식품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초푸드뱅크나 수혜처에서 기탁업체에 방문하여 가져가기를 바라는 업체(67.3%)가 가장 많았으므로, 효율적인 기탁품 수령을 위한 기초푸드뱅크의 활발한 기탁품 수거 활동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Table 7. Frequency of donation to foodbank

Frequency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N	%	N	%
Everyday	32	27.1	12	22.6
2~3 times/week	22	18.6	10	18.9
Once/week	4	3.4	9	17.0
Twice/month	4	3.4	5	9.4
Once/month	6	5.1	3	5.7
Irregularly	37	31.4	10	18.9
Etc.	1	0.8	1	1.9
No answer	12	10.2	3	5.7

Table 8. Methods to deliver the donative food to food bank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At present		In future		At present	
	N	%	N	%	N	%
Take by unit foodbank□users	89	75.4	74	62.7	38	71.7
Deliver to users	15	12.7	14	11.9	10	18.9
Take by the large-unit local foodbank	5	4.2	5	4.2	1	1.9
Deliver to the large-unit local food bank	2	1.7	0	0.0	0	0.0
Using the shipping agent	0	0.0	1	0.8	2	3.8
Etc.	0	0.0	1	0.8	1	1.9
No answer	7	5.9	23	19.5	1	1.9
					4	7.5
					8	4.7
					27	15.8

Table 9. The kinds of food and the reasons that donators who had more donative food did not donate

		Government-dominant (N = 37)	Non-governmental (N = 12)		Whole (N = 49)
			At present	In future	
Food not donate	Closeness to expiration date of food	26 (70.3)	7 (58.3)	33 (67.3)	
	Burden of too much re-packaging cost	4 (10.8)	1 (8.3)	5 (10.2)	
	Cooked food Easy to deteriorate	3 (8.1)	1 (8.3)	4 (8.2)	
	Etc.	4 (10.8)	2 (16.7)	6 (12.2)	
	No answer	0 (0.0)	1 (8.3)	1 (2.0)	
Reasons not donate ¹⁾	Lack of legal protection in the event of food poisoning	18 (52.9)	6 (60.0)	24 (54.5)	
	For fear of poor public image of food related accidents	17 (50.0)	6 (60.0)	23 (52.3)	
	Difficulties of collecting, delivering and distributing process related to donation	8 (23.5)	1 (10.0)	9 (20.5)	
	Lack of tax favor	2 (5.9)	2 (20.0)	4 (9.1)	
	Additional labor cost and financial resources to donate	2 (5.9)	1 (10.0)	3 (6.8)	
	Etc.	2 (5.9)	0 (0.0)	2 (4.5)	
	Total	49 (144.1)	16 (160.0)	65 (147.7)	

¹⁾ multiple answers

4. 기탁시의 문제점 및 관련 혜택

기탁 가능하지만 기탁하지 않는 식품은 주로 유통기한이 촉박한 식품(67.3%)이 가장 많았으며, 포장상태 불량으로 재포장 비용이 부담되는 종류(10.2%)의 순이었다(Table 9).

기탁 가능하지만 기탁하지 않는 이유는 식품 사고시 법적 보호가 없기 때문(54.5%), 식품사고시 기업의 이미지 손상 우려(52.3%), 기탁관련한 수거, 운송, 분배 등의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20.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현재 푸드뱅크 기탁자에 대한 보호 미비로 Table 8과 같이 법적보호 미비, 기업의 이미지 손상에 대한 우려로 기탁을 꺼려했던 기탁자들을 위해 법적 제도 마련시 기탁의 사에 대한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이 42.7%로 나타나 기탁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마련이 필수적인 사항임이 입증됨과 동시에 법적 보호 마련시 잠재 기탁자의 기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Table 10).

푸드뱅크에 기탁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장 큰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기여에 대한 만족감’ (50.9%)이 가장

Table 10. If there's a preparation of legal protection, whether they donate or not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Donate	55	46.6	18	34.0	73	42.7
Not donate	29	24.6	19	35.8	48	28.1
Etc.	5	4.2	1	1.9	6	3.5
No answer	29	24.6	15	28.3	44	25.7

Table 11. Benefit from donation

Benefit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Satisfaction of contribution	58	49.2	29	54.7	87	50.9
Reducing cost to treat left-over food	27	22.9	8	15.1	35	20.5
PR of corporate image	7	5.9	2	3.8	9	5.3
Tax favor from the government	4	3.4	1	1.9	5	2.9
Etc.	5	4.2	3	5.7	8	4.7
No answer	17	14.4	10	18.9	27	15.8

Table 12. Tax favor of donation and standard to treat book value¹⁾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Nothing	49 (61.3)		25 (71.4)		74	
Tax favor of donation	12 (15.0)		7 (20.0)		19	
Treat donative food as 100% cost	17 (21.3)		4 (11.4)		21	
Etc.	3 (3.8)		2 (5.7)		5	
Total	81 (101.3)		38 (108.6)		119	
I don't know	27 (22.9)		11 (20.8)		38 (22.2)	
Standard to treat book value	18 (15.3)		5 (9.4)		23 (13.5)	
A consumer price	13 (11.0)		5 (9.4)		18 (10.5)	
A factory price	8 (6.8)		1 (1.9)		9 (5.3)	
An agent price	5 (4.2)		3 (5.7)		8 (4.7)	
Cost of production	5 (4.2)		3 (5.7)		8 (4.7)	
Etc.	42 (35.6)		25 (47.2)		67 (39.2)	
No answer						

¹⁾ multiple answers

높았으며 ‘잉여식품 처리비용 절감’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업체들은 ‘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나 ‘정부의 조세감면혜택’ 보다는 ‘사회 기여에 대한 만족감’과 ‘잉여식품 처리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기탁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기탁문화가 올바르게 자리잡혀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조세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식품 기탁시 세제혜택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61.3%,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71.4%로 잉여식품 기탁시 받는 세제혜택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또한 장부가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서 산출하는

금액 기준이 소비자가, 공장도가, 대리점가, 제조원가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즉, 기탁한 식품에 대한 세금 혜택시 ‘장부가액’의 처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양을 기탁하였어도 업체마다 세금 혜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푸드뱅크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장부가액의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기탁업체는 ‘식품 사고

Table 13. Solutions to activate food bank program¹⁾

	Government-dominant (N = 118)		Non-governmental (N = 53)		Whole (N = 171)	
	N	%	N	%	N	%
Preparation of legal protection system in the event of food poisoning	74	70.5	26	61.9	100	68.0
Intensify PR of corporate image to the press	45	42.9	19	45.2	64	43.5
Supplement of national financial supports of vehicle maintenance's cost and labor cost	39	37.1	24	57.1	63	42.9
Prepare the guide of food safety	41	39.0	18	42.9	59	40.1
Connection between donators, operators and users	39	37.1	17	40.5	56	38.1
Institutionalization of consumer usage limit not just shelf-life	31	29.5	17	40.5	48	32.7
Enlargement of users	33	31.4	15	35.7	48	32.7
Tax favor not only food but also goods	31	29.5	16	38.1	47	32.0
Supplementation of volunteer worker	28	26.7	18	42.9	46	31.3
Needs of reward (additional points, certificate of commendation)	30	28.6	15	35.7	45	30.6
treat donation as a cost by the corporation tax law	32	30.5	9	21.4	41	27.9
Building the distribution chain to the effectiveness of the food bank program	32	30.5	9	21.4	41	27.9
Etc.	4	3.8	1	2.4	5	3.4
Total	459	437.1	204	485.7	663	451.0

¹⁾ multiple answers

시 제도적 장치 마련' (70.5%), '언론에 업체 홍보 강화' (42.9%), '식품의 안전성 지침 마련' (39.0%), '차량운영비, 인건비 등 국가지원 보강' (37.1%), '기탁자, 운영자, 이용자의 유기적 연계' (37.1%), '이용자 확대' (31.4%), '기탁시 법인세법에 의한 손비처리를 기부금으로 처리' (30.5%),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분배망 구축' (30.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13).

반면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기탁업체는 '식품 사고시 제도적 장치 마련' (61.9%), '차량운영비, 인건비 등 국가지원 보강' (57.1%), '언론에 업체 홍보 강화' (45.2%), '식품의 안전성 지침 마련' (42.9%), '자원봉사자 보강(42.9%)' '기탁자, 운영자, 이용자의 유기적 연계' (40.5%), '식품유통기한 외에 소비자 사용기한의 제도화' (40.5%), '식품이 아닌 물품도 세제혜택 가능하도록' (38.1%), '이용자 확대' (35.7%), '보상 필요' (35.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13). 즉,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의 기탁업체 모두 '식품 사고시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언론에 기탁업체 홍보 강화' 와 '기탁 식품 안전성 지침 마련'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식품사고 발생시 기탁자에 대한 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아 기탁업체의 잉여식품 기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사료되었다.

한편, 정부주도형 푸드뱅크 기탁업체에 비하여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기탁업체는 '차량운영비, 인건비 등 국가지원

보강' 이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식품유통기한 외에 소비자 사용기한의 제도화', '자원봉사자 보강' 등을 강조하였다. 반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분배망 구축'이나 '기탁시 법인세법에 의한 손비처리를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혜택, 기탁하는 식품을 운송하는 운송자에게 위생적인 식품 취급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고찰

본 연구 결과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보다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기탁자 중 단체급식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와 공공기관인 학교와의 협조 체제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에 비하여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원봉사자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력난도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효율적 분배망 구축보다는 예산지원, 자원봉사자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나타났다.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민간주도형 푸드뱅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는 민간주도형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은 정부주도형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Kim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기탁품의 유형 및 종류는 조리된 식품보다 빵류 등 제조, 가공식품이 많았는데, 이는 기탁시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높은 조리된 음식은 기탁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였다. 기탁 가능하지만 기탁하지 않는 식품은 주로 유통기한이 촉박한 식품이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완전 폐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김한승(2003)은 현 유통기한 단선 표시 제도를 유통기한(판매기한)과 유효기간(식용가능기간)으로 최소 이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 유통된 제품에 한해 유통기한은 지났더라도 유효기간 내 소비할 수 있도록 푸드뱅크로의 기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품 기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기한을 '제조일자',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으로 나누어 섭취시 건강에는 위해가 없으나 최상의 품질은 아닌 상태의 식품은 기탁 가능하도록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Park (1998)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에 각 식품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도래된 식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판매'로 보기 때문에 기탁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가공식품의 경우 사실상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이중 표기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만 금지시키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일 경우에는 푸드뱅크에 기탁할 수 있도록 식품 위생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기탁이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이 촉박하여 버려지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탁 가능하지만 기탁하지 않는 이유로는 식품 사고시 법적 보호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기탁자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시 기탁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식품 사고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2006년 9월 25일부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기탁 식품으로 인한 식품 사고 발생 시 기탁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 기탁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판단된다.

그 외에 기탁한 식품에 대한 세금 혜택에 관해서는, 푸드뱅크 관련 법률의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장부가액의 처리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3)은 푸드뱅크 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2001년 1월부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조제6항에 의해 식품기탁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사실상 미미하고 기업 측에서는 실제 소득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주체에 따른 푸드뱅크 기탁자의 실태 및 기탁 특성을 분석하여 푸드뱅크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전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탁자의 유형은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제과·제빵업체(31.4%)와 함께 단체급식업체(23.7%)가 가장 많았으며,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제과·제빵업체(45.3%)의 기탁이 가장 높고, 단체급식업체의 기탁(5.3%)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푸드뱅크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계기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푸드뱅크의 홍보활동'(37.3%) '공공기관에서의 홍보(23.7%)' 순이었고,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방송매체, 인쇄물, 인터넷'(34.0%), '푸드뱅크의 홍보활동'(32.1%)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는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주로 종교단체의 성격과 여러 단체로 구성된 특성상 자체 내 인쇄물이나 인터넷, 방송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기탁자에게 전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탁품은 주로 '판매재고 상품'(55.6%)이 가장 많았으며, 기탁품의 종류는 제조·가공식품 중에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71.9%)와 민간주도형 푸드뱅크(60.5%) 모두 빵류가 가장 많았으며, 조리된 음식으로는 반찬류와 밥류가 주로 기탁되었다.

넷째, 기탁빈도는 정부주도형 푸드뱅크의 경우 '비정기적'(31.4%)이 가장 많았고 민간주도형 푸드뱅크는 '매일 기탁'(2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기탁 가능하지만 기탁하지 않는 식품의 종류는 '유통기한이 촉박한 식품'(67.3%)이 가장 많았다.

여섯째, 기탁 가능하지만 기탁하지 않는 이유는 '식품 사고시 법적 보호가 없기 때문'(54.5%), '식품사고시 이미지 손상 우려(5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탁자에 대한 법적 보호 마련시 기탁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2.7%

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기탁자의 실태 및 각 주체별 기탁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 법률 제 8조에는 기탁자의 민·형사상의 책임감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푸드뱅크 기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제혜택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한승(2003) :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 관련 쟁점 및 해결방향, 식품기탁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촉진
- 서울특별시(2002) : <http://www.metro.seoul.kr>
- 정기혜·박수천·김영래(1998) : 푸드뱅크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무성·김종승·양용희(2005) : 기업의 식생필품 기탁참여 활성화 방안—푸드뱅크 사업을 중심으로. 전국푸드뱅크
- Cheong JS (1999): Community organization for establishing a church sponsored foodbank. Soongsil University, Master's thesis
- Han JL (2001): A study on the practice of community organizing - focusing on a case study of networking and small groups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on Kwanak community welfare. So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 Heo YS, Lee BH (1999): Application of HACCP for hygiene control in university foodservice facility - focused on vegetable dishes (Sengchae and Namul). *J Fd Hyg Safety* 14 (3): 293-304
- Hong MA (2003): The development of promoting strategies for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in Korea.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 Kang HS (2002): Economic validity evaluation using cost benefit analysis of the non-government foodbank program. Yonsei University,

Doctoral Thesis

- Kang HS, Hong MA, Yang IS, Jo MN, Kim CJ (2005):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from the users' perspectiv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0 (2): 224-233
- Kang HS, Yang IS, Lee YS (2003): Investigation of the conditions and evaluation of the benefits of the foodbank program from the recipients' perspectiv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 (2): 231-239
- Kim CJ, Park HS, Bae HJ, Lee JH, Yang IS, Kang HS (2002): Implementation of HACCP system for safety of donated food in foodbank organization. *Korean J Dietary Culture* 17 (3): 315-328
- Kim DG (2004): Community organizing through food bank - focusing on a case of food bank, dobong area.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judicial affair, Master's thesis
- Kim J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 model for the activation of foodbank.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 Kim KH (2003):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 for the food bank operation system in Seoul.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Kwak TK, Hong WS, Moon HK, Ryu K, Chang HJ (2001): Assessment of sanitary management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 operations in Seoul. *J Fd Hyg Safety* 16 (3): 168-177
- Lee HO, Shim JY, Kim YK, Cho MH, Choi HS, Om AS (2001): Assessment on HACCP recognition & sanitary management of the industry foodservice manager in Seoul.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7 (6): 542-548
- Oh KH (2002): A study on the management realities and improvement of Korea's food bank programs.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 Park YS (1998): (A) Study on reform measures for operating the food bank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s of food bank in Seoul. University of Seoul, Master's Thesis
- The Second Harvest Research Study (1997): Hunger 1997-The Faces & Facts
- Yang IS (2002):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for foodbank program- development of system & food safety module based on HACCP system & heuristic model. The Korean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KOSEF)
- Yang IS, Kang HS, Kye SH (2002): An analysis of food donators' attitudes to the foodbank program in Korea.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7 (4): 571-577